

중남미 코로나19의 특징과 대응 그리고 파급 영향

손혜현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20. 6. 17.

발 표 손혜현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토 론 임소라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 교수

인남식 아프리카중동연구부 부장대리

강상준 중남미국 남미과 사무관

발 행 일 2020년 7월 10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정혜영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중남미 코로나19의 특징과 대응 그리고 파급 영향

CONTENTS

문제 제기	01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특수요인	03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전략	15
코로나19의 중남미 파급 영향	22
고려사항	30

1. 문제 제기

» 최근 중남미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을 상회하면서 중남미 지역이 팬데믹의 새로운 진앙지가 됨.

● 6월 29일 현재까지 총 25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1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매일 5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명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제한적인 보건시스템 역량, 재정 자원 부족, 높은 빈곤율, 비대한 비공식 노동부문,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 제도의 취약성 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정치적 리더십 문제까지 겹쳐지면서 바이러스 확산 곡선은 꾸준히 상승 중임.

● 최근 확산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들이 봉쇄를 완화하고 있고, 격리 및 봉쇄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증가로 국민들의 격리 이탈이 늘어나는 상황에 계절요인까지 더해지면서 확산세는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의 낮은 검진율, 신속진단키트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정부 통계의 신뢰성 문제로 실제 피해 숫자는 보고된 것보다 더 클 수 있음.

» 중남미 지역 국가들은 초기 진원지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먼저 큰 비용을 치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학습효과로 비교적 초기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했으나, 방역 성과에 있어서 역내 국가들 간 차이가 나타남.

● 2월 26일 브라질을 시작으로 3월 19일 마지막으로 아이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남미 전체가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들어감.

● 코로나19 대처에서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성공적이었던 반면,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는 감염 확산 통제에 실패함.

»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의 중남미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역내 국가들 간 피해 상황 및 방역 성과의 차이와 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는 데 있음.

2. 중남미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특수 요인

가. 코로나19 현황

» 현재 중남미는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6월 29일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 수 250만 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 1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남미가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앙지가 됨.

누적 확진자 수 250만 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 112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남미가
전 세계 코로나19의 진앙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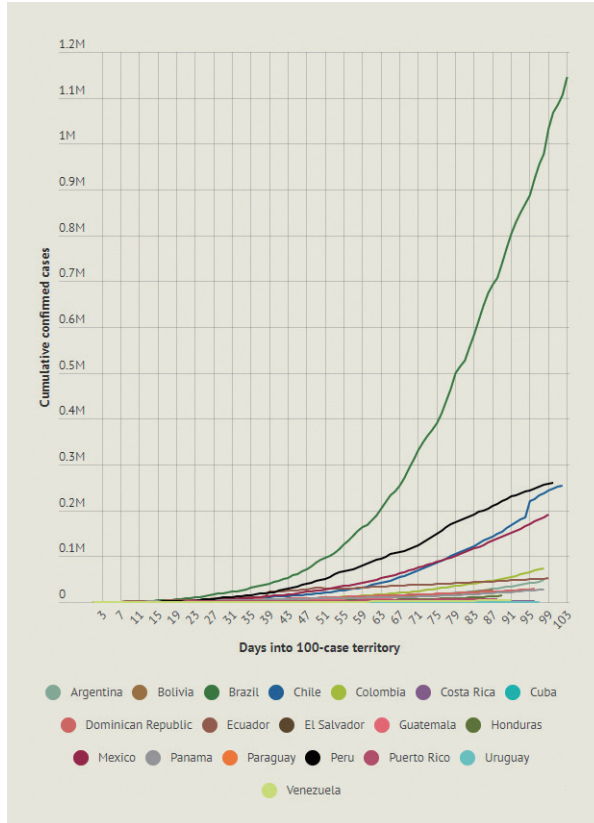
〈표 1〉 중남미 국가별 코로나19 현황

	국가 (인구)	확진자	/1M	사망자	/1M	검진 (한국1,196,012)	/1M (한국23,328)
1	브라질 (212,525,202)	1,370,488 +25,234	6,448	58,385 +727	275	3,017,350	14,196
2	페루 (32,959,833)	282,365 +2,946	8,565	9,504 +187	288	1,661,324	50,391
3	칠레 (19,112,361)	275,999 +4,017	14,438	5,575 +66	292	1,096,443	57,359
4	멕시코 (128,899,712)	216,852 +4,050	1,682	26,648 +267	207	556,198	4,314
5	콜롬비아 (50,869,620)	95,043 +3,274	1,868	3,223 +117	63	743,437	14,612
6	아르헨티나 (45,193,867)	62,268 +2,335	1,378	1,280 +48	28	344,409	7,621

7	에콰도르 (17,635,866)	55,665 +410	3,155	4,502 +73	28	344,409	7,621
8	도미니카공화국 (10,845,284)	31,816 +443	2,933	733 +7	68	148,208	13,663
9	파나마 (4,312,925)	32,785 +1,099	7,599	620 +16	144	128,795	29,854
10	볼리비아 (11,668,878)	31,524 +848	2,701	1,014 +44	87	70,872	6,072
11	온두라스 (9,900,320)	18,082 +1,075	1,826	479	48	49,308	4,979
12	과테말라 (17,906,094)	16,930 +533	945	727 +21	41	31,427	1,754
13	엘살바도르 (6,485,498)	6,173 +239	952	164 +12	25	160,216	24,701
14	아이티 (11,399,016)	5,847 +70	513	104 +4	9	11,332	994
15	베네수엘라 (28,437,362)	5,530 +233	194	48 +4	2	1,240,181	43,613
16	코스타리카 (5,093,016)	3,269 +139	642	15	3	38,500	7,558
17	쿠바 (11,326,746)	2,340 +8	207	86	8	166,335	14,685
18	파라과이 (7,130,320)	2,191 +64	307	16 +1	2	68,027	9,538
19	니카라과 (6,622,575)	2,170	328	74	11	-	-
20	우루과이 (3,473,480)	932 +3	268	27	8	2,552	3,245
1	미국	2,681,811		129,358			
2	중남미	2,525,107		113,368			
3	유럽	2,429,820		191,550			

※ 출처: <https://www.worldometerinfo/coronavirus/#country> (검색: 2020.6.29)

〈그림 1〉 확진자 100명 발생 이후 중남미 국가별 감염 확산 추이



※ 출처 : AS/COA

» 일일 평균 5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2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검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 피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임.

» 확산 곡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격리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의학적 대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확산 곡선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격리와 봉쇄를
완화함에 따라 확산 곡선은
꺾이지 않을 것...

» 역내 확진자 및 사망자의 90%가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에 집중되어 있음.

●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137만 명 그리고 사망자 5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중남미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국가이고, 매일 2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와 7백 명 이상의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확산 곡선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임.

● 역내 인구 당 감염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수 1만 4천 명 그리고 사망자 수 292명을 기록한 칠레로 나타남.

● 역내 인구 당 가장 많은 검진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인구 100만 명 당 5만 7천 건의 칠레와 5만 건의 페루임(한국의 경우 인구 1백만 명 당 2만 3천 건).

» 통계상 역내 인구 당 감염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쿠바, 파라과이, 니카라과,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로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열악한 공중보건 상황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있고, 특히 베네수엘라는 PCR 검진이 아닌 신속진단키트를 사용한다는 점과 니카라과는 격리나 봉쇄 조치가 전혀 없이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통계의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됨.

● 파라과이,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선제 대응으로 감염 통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음.

나.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촉진 요인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질병이나 확산의 양상이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남미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

하는 지역적 특수 요인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비공식 노동, 정치 리더십, 사회문화적 요인임.

중남미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촉진하는 지역적 특수 요인은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비공식 노동, 정치 리더십, 사회문화적 요인임

(1) 빈곤과 사회 불평등

»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빈곤

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은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적이고 경제적 여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임.

» 확산 초기에는 확진 사례가 유럽 및 미국 여행에서 귀국하는 중남미 상류층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부자들의 병’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도시 슬럼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향후 확산 곡선은 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중남미의 도시화율은 81%이며, 전체 인구의 약 20%인 약 1억 2천만 명이 슬럼가에 거주함.

- 대도시의 슬럼가는 열악한 위생환경, 좁고 밀도가 높은 거주환경과 집단생활, 영양 부족과 건강 불량 그리고 제한적인 의료접근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높음.
-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일용직 저임금 비공식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격리 장기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정부의 조치를 위반하고 일터로 나옴.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시(인구 1천3백만 명) 인구의 23%는 슬럼가인 파벨라(Favela)에 거주하며, 역내에서 인구당 가장 높은 감염률을 기록한 칠레의 산티아고시의 경우 822개의 슬럼가에 74만 6천 명이 거주함. 그 외에도 페루의 경우 리마시 인구의 34%, 볼리비아의 경우 라파스시 인구의 44% 그리고 과테말라의 경우 과테말라시티 인구의 35%가 슬럼가에 거주함.

빈곤율은 30.8%, 극빈곤율은 11.5%를 기록...

» 중남미의 빈곤율은 2002년 45.4%에서 2014년 27.8%로 감소하면서 6,600만 명이 빈곤에서 구제되었고, 극빈곤율도 2002년 12.2%에서 2014년 7.8%로 크게 감소했으나, 2015년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타면서 2019년 빈곤율은 30.8%, 극빈곤율은 11.5%를 기록함¹⁾.

- 빈곤율 변화는 소지역별로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중미와 멕시코에서는 빈곤율 감소가(2014년 45%에서 2018년 42%),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빈곤율 급상승에 따른 빈곤율 증가가 나타남.
- 빈곤에서 구제된 신형 중산층은 질 낮은 직업, 열악한 사회 보호망, 불안정한 소득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취약층임.

중남미는 소득 및 사회 불평등이 매우 높은 지역...

»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INI 계수의 중남미 평균은 2018년 0.456(한국 0.30)으로 중남미는 소득 및 사회 불평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인구의 30%가 재정적인 이유로, 20%가 지역적 이유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함.

- 상위 10% 소득이 하위 40%의 평균 소득보다 14배나 많으며, 브라질(57.8%), 콜롬비아(54.8%), 온두라스(54.6%), 멕시코(54.2%), 파나마(54.2%), 코스타리카(54%), 파라과이(54%), 칠레(52.9%), 도미니카공화국(51.5%), 에콰도르(50.1%)의 경우 상위 20%의 소득이 국가 전체 부의 50% 이상을 차지함.

1) ECLAC,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19".

» 2000년 이후 중남미 중산층은 41%로 증가했으나, 위기 시 언제라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빈곤층인 중하층이 두텁기 때문에 중남미 전체 인구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은 70% 이상임.

● 중하위 소득층은 주로 비공식 부문 노동자

또는 영세 자영업자이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저축률도 낮아 소득이 감소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함.

보건시스템의 ‘파편화(fragmentation)’로 인한 의료접근의 형평성 및 불평등을 심화...

»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를 기본적인 인권이자 복지후생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보건시스템의 ‘파편화(fragmentation)’로 인한 의료접근의 형평성 및 불평등을 심화 시킴.

● ‘파편화’는 중남미 보건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중남미 보건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공보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산층 이상이 비싸게 이용하는 민영의료 서비스임.

● 경제적 조건과 직업에 따라 차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시스템의 파편화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이 상당수이며, 의료보험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와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

〈표 2〉 보건시스템의 파편화

국가	보건시스템	수혜 대상
아르헨티나	공공의료보험(Public)	전 국민 대상 : 의료보험 미가입 빈곤층,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우선, 무료
	사회노동보험(OS)	인구의 42% : 정규직 노동자 의무보험
	민영의료보험(EMP)	인구의 8%
	포괄적의료지원(PAMI)	인구의 11% : 연금 수혜자 및 은퇴자

브라질	공공의료보험(SÚS)	전 국민 무료 : 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무료
	민영의료보험	인구의 77.5% : 도시 노동자
칠레	공공의료보험(FONASA)	원주민(A), 저소득층(B), 중하위소득(C), 중상위소득(D)
	민영의료보험(ISAPRE)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
콜롬비아	의료보험 분담제도	지불 능력이 되는 노동자
	의료보험 보조제도	지불 능력이 없는 빈곤층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코스타리카	국영보험(CCSS)	전 국민 대상
	민영의료보험(국가보험원)(INS)	가입자
에콰도르	국영의료보험(MSP)	인구의 51%
	경제사회 포용 부(MIES)	의료보험 미가입자
	에콰도르 사회 안정원(IESS)	인구의 20% : 정규직 노동자
	군인사회보장원(ISSFA)	인구의 5% : 군인과 군인가족
	국가경찰사회보장원(ISSPOL)	인구의 5% : 경찰과 경찰가족
	민영보험	인구의 3% : 상류층, 중상계층
멕시코	공공의료보험(SP)	인구의 48% : 의료보험 없는 농촌·도시 빈민
	공무원 의료보험(ISSTE)	인구의 1.5% : 공무원과 가족
	멕시코석유공사(PEMEX) 육군과 공군(SEDENA) 해군(MARINA)	인구의 1.2% : 멕시코 석유공사, 육군, 공군, 해군 대상, 별도 사회보험청 존재
	민영의료보험 (IMSS)	인구의 25% : 보험료 납입자
파나마	사회보장기금(CSS)	인구의 84.4% : 임금 노동자
	MINSA	인구의 47% : CSS 미가입자
	민영의료보험	인구의 6% : 보험료 납입자
페루	건강사회보험(EsSalud)	인구의 30% : 정규직 임금노동자
	종합의료보험	인구의 60% : 빈곤층, 자영업자, 독립노동자
	육군(FFAA)	인구의 10% : 육군 군인과 가족
	국가경찰(PNP)	인구의 10% : 경찰과 가족
	민영의료보험	인구의 10% : 보험료 납입자
우루과이	국가 의료재단(FONSA)	인구의 73%
	민영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자

※ 출처 : LSE²⁾

2) Panos Kanavos, Geogia Colville Parkin, Bregtje Kamphuis & Jennifer Gill, "Latin america Healthcare System Overview: A comparative Analysis of fiscal space in healthcare", LSE, 2019 Aug. pp.21-24.

(2) 비공식 노동

»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대한 규모의 비공식 노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붕쇄, 휴업, 기업 도산으로 많은 비공식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함.

- 비공식 경제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경제활동, 기업, 직업, 노동자를 의미하며, 중남미 비공식 고용의 비율은 평균 53%이며, 우루과이 24.5%에서 과테말라 79.7%까지 역내 편차가 큼.

» 비공식 경제의 노동자들은 위기 시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불안감과 취약성,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2005~15년 중남미 국가들의 노인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 비기여 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비공식 노동자들은 혜택에서 소외됨.

» 저축률이 낮고 하루하루 생계활동을 하는 비공식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붕쇄가 장기화되면서 생계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일터로 나오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짐.

» 중남미 정부들은 비공식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대한 규모의 비공식 노동...

〈표 3〉 중남미 국가별 실업률 및 빈곤율

	실업률(%) 2019	비공식 노동(%) 2016	GINI 2018	빈곤율 2018
중남미	8.1	53.1		30.1
브라질	12.1	46.0	0.540	19.4
코스타리카	11.9	39.1	0.493	16.1
아르헨티나	9.8	47.2	0.396	24.4
콜롬비아	9.7	60.6	0.520	29.9
베네수엘라	8.8	39.7	0.378	*28.3
우루과이	8.7	24.5	0.391	2.9
칠레	7.1	40.5	0.454	10.7
니카라과	6.8	77.4	0.495	43.3
도미니카공화국	5.8	56.3	0.444	22.0
온두라스	5.4	79.9	0.481	55.7
파라과이	4.8	70.6	0.474	16.8
엘살바도르	4.1	69.6	0.405	34.5
에콰도르	4.0	59.0	0.454	24.2
파나마	3.9	52.3	0.498	14.5
볼리비아	3.5	83.1	0.438	33.2
멕시코	3.4	53.4	0.504	41.5
페루	3.3	69.2	0.439	19.5
과테말라	2.5	79.7	0.535	*50.5

*은 2014년 자료임.

※ 출처 : ECLAC, "Social Panorama of Latin America 2019".

(3) 정치적 리더십

» 국가적 위기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결집 효과가 일부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적절하지 않은 언행과 상황 판단으로 정치적 구심력이 분산됨으로써 피해와 혼란을 가중시킴.

대통령의 적절하지 않은 언행과 상황 판단으로 정치적 구심력이 분산됨으로써 피해와 혼란을 가중시킴

● 이번에는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브라질의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보건 우선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 기구(WHO), 의회, 주정부, 주무 부처 관료 및 전문가 집단과 대립의 정치구도를 형성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정치적 기회로 이용함으로써 피해와 혼란을 키움.

●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보건보다 경제 위기 최소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보건 전문가와 주무부처의 격리 권고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임.

● 니카라과는 오르테가(Daniel Ortega) 대통령은 대중들 앞에 나서지 않아 지도자의 부재를 보여주었으며,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부재로 국민 각자가 위기에 대응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중남미 국가들의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하는 계기가 됨.

● 효과적으로 감염을 통제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알바라도(Carlos Alvarado Quesada), 우루과이의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파라과이의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대통령은 역내 감염 확산 직후 전문가를 소집하고 야당 및 지방정부와의 공조 하에 감염 억제에 성공함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줌.

- 반면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코로나19를 단순한 감기로 일축하면서 격리와 마스크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무시한 결과 대통령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건강과 안전보다 경제봉쇄에 따른 경제위기를 더 심각한 국가위기로 인식하면서, 방역우선을 강조하는 보건부와의 마찰에 두 명의 보건부장관 경질, 지방정부와의 불협화음, 감염증세속에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감염억제에 실패함.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반체적이고 무책임한 리더십이 브라질의 감염확산 가속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멕시코의 경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강한 카리스마와 의회 장악력으로 인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같은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충돌은 없었으나, 방역에 우선적인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방역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보건과 경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비일관적인 리더십을 보여줌.

(4) 사회문화적 요인

≫ 코로나19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중남미 빈곤층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돼 있었고 말라리아, 황열병, 지카바이러스 등의 전염병, 폭력, 살인의 일상화가 안전 불감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전보다 경제 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 중남미에서는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비싼 주거비용과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 형제, 친지 등이 한 집에 거주하는 대가족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이 가능한 구조임.

≫ 가족, 친지, 친구 간 교류를 중시하고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보편적이고 볼 키스와 포옹 등 신체 접촉이 일상화돼 있어 감염의 위험이 높음.

3.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 감염력이 강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량의 검진을 통해 확진자를 구별하여 격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중남미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들은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격리와 경제봉쇄를 통한 보건적 대응과 피해 계층 및 취약층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음.

중남미 국가들은 격리와 경제봉쇄를 통한 보건적 대응과 피해 계층 및 취약층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적 대응으로 대처...

(1) 보건적 대응 :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 중남미 국가들은 초기 확산 지역인 아시아와 유럽의 대응 사례를 거울삼아 역내 감염이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사람의 이동과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피해 계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을 시행했으며, 구체적인 전략은 국가 간 차이가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의 격리조치는 강도에 따라 의무 격리, 자발적 격리, 부분적 격리 비의무적 격리 그리고 비격리로 구분됨.

〈표 4〉 중남미 국가별 격리조치 강도

격리조치 강도	국가	
의무적 격리	통행시간 규제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통행시간 비규제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자발적 격리(권고)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부분적 격리	칠레, 쿠바, 과테말라	
비의무적 격리	브라질, 멕시코	
비격리	니카라과	

≫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온두라스,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은 의무 격리와 함께 통행시간까지 제한하면서 가장 강도 높은 격리조치를 시행함.

- 전국적인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여 위반 시 법으로 처벌함.
- 필수업종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구매와 허용된 활동을 위한 외출이 가능함.
- 통행시간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볼리비아(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와 에콰도르(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임.
-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신분증 번호에 따른 요일제 외출을 실시함.
- 파나마는 성별 요일제 외출을 실시하며, 남성은 화·목·토 2시간, 여성은 월·수·금 2시간 외출이 허용되며 일요일에는 외출이 전면 금지됨.
- 콜롬비아의 보고타시는 물품구매와 은행 업무를 위해 여성은 홀숫날, 남성은 짝숫날 외출이 허용되며, 운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허용됨.

≫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는 이동시간제한 없이 전국적인 의무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매우 광범위하고 강경하며, 필수 직종 종사자만 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기초 물품(식료품과 의약품) 구매를 위한 외출만 허용함.

» 칠레, 쿠바, 과테말라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심한 지방에서만 격리를 시행하고 전국적 차원의 의무 격리는 발령하지 않았으나, 전국적 차원에서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 중단, 사회적 거리조치,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함.

»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는 공공시설 폐쇄, 필수업종이 아닌 직종의 업무 중단, 학교 수업 중단 등을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였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의무 아닌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의 경우 국민의 90%가 자발적으로 외출을 중단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대다수의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함.

» 브라질과 멕시코는 사회적 거리조치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수업 및 공공시설 폐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격리 조치도 발령하지 않았으며, 거리조치를 둘러싸고 정부 내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이견차로 보건위기에 정치적 위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음.

- 브라질 중앙정부의 느슨한 거리조치에 대해 최대 인구 도시인 상파울루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의무 격리를 발령하고 학교 수업 중단 이동을 제한하며 불복종에 대한 처벌을 시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킴.

» 니카라과는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조치나 규제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의 사랑(Love in time of Covid-19)’이라는 표어 아래 대중 행진을 조직함.

- 입국 제한이 없고 공공시설을 폐쇄하지 않았으며, 학교와 상점은 정상영업 중이며, 스포츠 경기도 계속됨.

(2) 경제적 대응 : 재정확대 정책

» 병상수가 적고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하나, 경제침체 심화,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내수 중단, 수출 물량과 가격 하락, 관광 및 송금 수입 감소, 대규모 자본 유출로 경제적 피해가 큰 중남미 국가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실업보험이나 의료보험에 접근할 수 없는 비공식 및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파산 위기의 사업자 구호를 위한 대담한 재정확대 정책이 매우 필요함.

〈표 5〉 2018년 중남미 주요 10개국 재정적자

국가	재정적자(%GDP)	국가	재정적자(%GDP)
브라질	-7.17	파나마	-3.19
코스타리카	-5.91	도미니카공화국	-2.16
아르헨티나	-5.49	우루과이	-2.03
콜롬비아	-4.68	페루	-2.00
에콰도르	-4.68	칠레	-1.47

※ 출처: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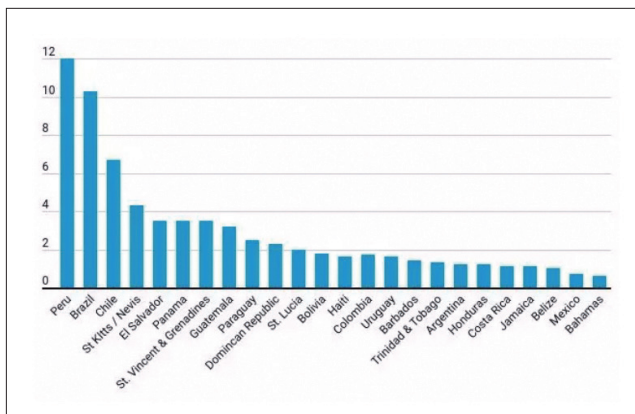
»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한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했음.

GDP의 2.4%의 재정을 추가 지출...

» 위기 대응을 위해 중남미는 GDP의 2.4%의 재정을 추가 지출하기로 했으나, 이는 세계 평균 3.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역내 국가 재정지출 규모는 각 국가의 재정적자, 부채 규모 및 이차지출 비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브라질, 칠레, 페루가 대형 재정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특히 페루는 GDP의 12%를 경기부양에 쏟아부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염병에 대응하고 있음.
- 재정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함.
- 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수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움.

〈그림 2〉 중남미 국가별 재난지원패키지 규모(%GDP)



※ 출처 : IMF

≫ 실제로 중남미 지역 많은 국가들이 재정긴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긴급 경기부양을 위해 역내 16개국 IMF로부터 신속금융제도(RFI: Rapid Financing Instrument)와 신속신용제도(RCF: Rapid Credit Facility)를 이용하여 총 51억 1,772만 달러를 긴급 대출 받았음.

- 바하마(2억 5천만 불), 바르바도스(9,100만 불), 볼리비아(3억 2,700만 불), 코스타리카(5억 800만 불), 도미니카연방(1,400만 불), 도미니카공화국(6억 5,000만 불), 에콰도르(6억 4,300만 불), 엘살바도르(3억 8,900만 불), 그레나다(2,240만 불), 과테말라(5억 9,400만 불), 아이티(1억 1,160만 불), 온두라스(2억 2,300만 불), 자메이카(5억 2,000만 불), 파나마(5억 1,500만 불), 파라과이(2억 7,400만 불), 세인트루시아(2,920만 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1,600만 불)을 받음.

» 중남미 국가들은 최악의 상황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검사, 병상, 인공호흡기 및 의료장비를 포함한 공중보건조치에 긴급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음.

- 소비 확대를 위해 취약가정에 현금 지원, 격리조치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보험 제도 확대 및 수혜 자격 완화, 연금 지급, 급여 지원, 해고 금지 그리고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사업(특히 보건 인프라) 예산 확대, 사업체 세금 감면 또는 세금 연기 및 대출을 확대함.
-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하, 규제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저신용 한도 확대 및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함.

〈표 6〉 중남미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주요 내용

국가	주요 내용
브라질	● 3월 20일 의회의 ‘공공 비상사태’ 선언 이후 2020년 재정책임법 제한이 폐지되면서 정부는 3월 26일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비롯한 GDP 6.5% 수준의 다수 재정정책을 발표 • △취약가구 지원: 근로자 연말 보상(13월 보너스) 선지급, 저소득층 현금 지원(Bolsa Familia) 증액, 비공식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 • △고용 지원: 임금 공제, 근속연수보상기금(FGTS)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공무원기금형성기여제(PIS/PASEP) 이전, 세금 납부 연기, FGTS/기여금 축소 • △주정부 및 지자체 금융 지원, △공공금융기관 활용 가게 및 기업 유동성 공급(BNDES 110억 달러, Caixa 150억 달러, 중앙은행 250억 달러) 등 ●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경기 활성화 조치(Pro-Brazil) 발표(4.22)
멕시코	● 주요 재정 조치 • △보건부 재정 지원, 의료장비 및 물자 공급, △노령연금 선지급, △예산 조기 시행을 위한 공공지출 입찰절차 신속화, △의회 추가 자금 요청을 통한 긴급보건기금(GDP 0.7%, 1,800억 페소) 설립 고려 ●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정부 우선 정책 발표(4.5) • △사회연금 및 장애 연금 4개월 선지급, △조달절차 가속화 및 부가세 환급, △중소기업 대출(250억 페소), △개발은행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일부 근로자 사회보장계좌 접근성 허용, △공공주택신용기구 근로자 3개월 채무 부담, △고용 및 임금 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대출(230억 페소) ● 공공지출 긴축 프로그램 발표(4.19) • △보건부문 추가 지출 및 우선 투자(GDP 2.5%)를 위한 공공부문 임금 삭감 및 고용 감축

아르헨티나	● 비상 경제조치(3.17): GDP 대비 1.2%(7천억 페소, 110억 달러) 규모 • △보건 지출(바이러스 진단 개선, 병원 장비 구매, 병의원 신축, △근로자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급여·연금·아동 보조금 인상, △팬데믹 영향 부문(레저산업, 관광업 등) 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 임시 인하, △소비 지원: 공공사업(주택 건설 확장, 학교 건물 개보수) 예산 증액, △연체 가구 유틸리티서비스 지속, △식품 및 기초 생필품 생산,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신용보증 등
콜롬비아	● 국가비상사태 명령권 발동(3.17) • △국가비상완화기금 설립: 지방·안정화기금(GDP 1.5%)으로 조성 및 국채 발행과 기타 예산(GDP 1.3%)으로 보완 ● 추가 재정 지원 • △긴급대응 보건서비스 계약, 관광부문 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임금 및 대출 상환 지원(국가보증기금), △사용자 및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2개월 연기, △관광 및 항공 부문 납세 연기, △보건용 수입, 선별적 식품산업 및 서비스 관세 및 VAT 면제,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 유틸리티 요금 납부 연기, △취약계층 소득 이전
칠레	● 1차 비상 경제계획(3.19) • △GDP 4.7%(117.5억 달러) 규모 긴급 재정지출 계획, △보건 지출 증액, △실업(휴직)기금 지원, △중소기업 세금 환급 및 납세 연기, △Banco del Estado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공공조달계약 지불 신속화 ● 2차 비상 경제계획(4.8) • △1차 비상 경제계획에서 제외된 비공식 부문 근로자(실업보험 미가입자 260만 명) 및 소기업 지원(20억 달러), △기업 금융조달 원활화를 위한 신용보증(30억 달러)
페루	● 주요 재정 지원 조치(3.16) • △긴급보건지출(GDP 0.14%, 11억 솔), △전국 봉쇄 기간 저소득 가구 소득지원(GDP 0.4%, 34억 솔), △중소기업 소득세 신고 3개월 연기 및 기업/가계 조세채무 상환 연기(GDP 1.4%), △우수 중소기업 지원 기금 설립(운전자금 및 채무 상환, GDP 0.04% 3억 솔) 승인, △가계 유틸리티 요금 납부 연기 ● 'post-코로나19' 경기부양 계획 발표(3.30) • △IMF CCL(180억 달러) 및 World Bank CCL(21억 달러) 포함 GDP 12%(260억 달러) • △보건 의료 지출, △현금 지원, △세금 감면 대출 보증 등

※ 출처: KIEP, 2020년 세계경제전망, p.111

4. 코로나19의 중남미 파급 영향

코로나19는 장단기적으로 중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에 심각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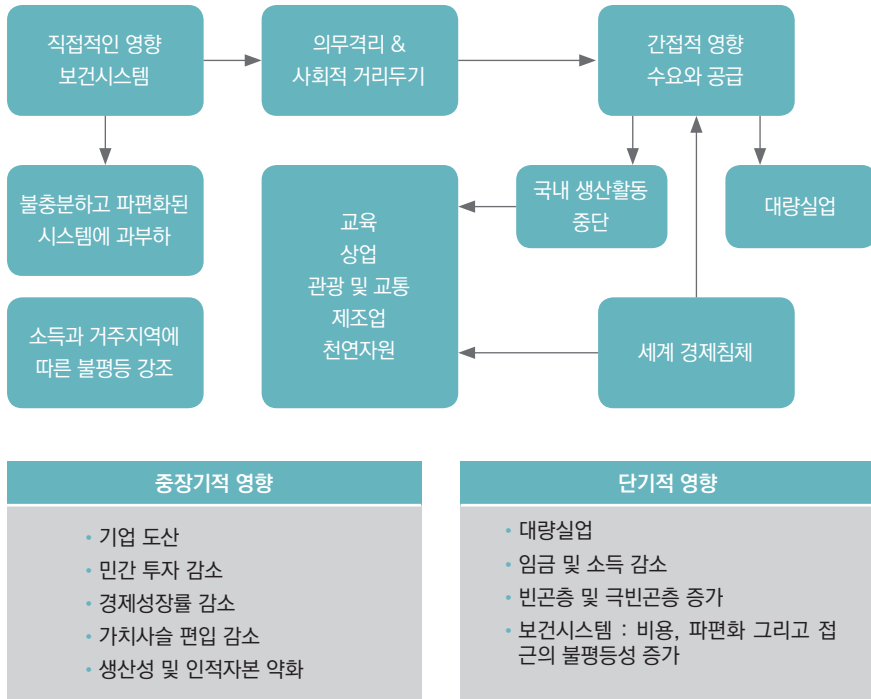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장단기적으로 중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각 국가의 경제적 조건, 세계무역, 전염병 지속 기간 그리고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경제적 조치와 기본적인 사회구조에 따라 국가 간 차이가 있음.

가. 경제적 영향

» 코로나19 억제의 핵심 전략인 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산 커브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높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

- 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기적으로는 생산 활동의 둔화 또는 중단, 임금 및 소득 감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임금 및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증가, 의료시스템의 파편화와 분절화 심화 및 의료이용의 불평등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도산, 투자 감소, 저성장, 가치사슬 편입 감소 및 생산성 하락과 인적자본 감소가 나타남.

〈그림 3〉 코로나19의 경제적 비용



※ 출처: CEPAL³⁾자료 참고 재구성

»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는 2020년 중남미 경제가 -5.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취약성이 노출됨.

2020년 중남미 경제가 -5.3%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3) CEPAL, "América Latina y el Caribe ante la pandemia del COVID-19", 2020.4.3.

- 코로나19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글로벌 가치사슬의 혼란, 관광업 수입 감소, 송금 감소, 위험회피 및 외국인 투자 감소로 중남미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됨.
- 역내 경제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5.2%와 -6.5% 경제성장이 전망되면서 두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역내 국가들의 타격도 큼.

≫ 2020년 세계 무역량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영향으로 올해 중남미 수출도 10.7% 하락할 것이며, 특히 원자재 수출과 석유 수출에 특화된 남미 국가들과 산유국 즉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타격이 클 것이라 전망임.

-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브라질, 칠레, 페루, 우루과이의 피해가 클 것임.

≫ 가장 많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미국의 코로나19 피해가 크고, 특히 이민자들의 주력 업종인 건설, 식당, 호텔이 폐쇄되면서 이민자 송금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중미, 카리브 국가들의 송금이 10~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임.

≫ 국경 폐쇄로 여행이 중단됨에 따라 관광업이 주력 산업인 카리브 국가들과 GDP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멕시코와 페루의 중소기업들의 파산과 노동자들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전망됨.

≫ 역내 실업률은 전년 대비 3.4% 상승한 1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3,700만 명이 실업자가 될 전망임.

- 실업률이 칠레 8.2%, 브라질 12.2%, 콜롬비아 12.6%, 멕시코 10.7%로 상승함.

나. 사회적 영향

» 고용과 빈곤의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실업문제가 빈곤층과 중하위 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상승할 것임.

● 이번 위기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로 생계

유지를 위한 비공식 부문의 확대는 더 심화될 것이며, 빈곤층 가정의 경우 자녀들을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보면서 아동노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교육 부문과 관련하여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교 수업이 전면 중단되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간, 지방과 도시 간 그리고 경제적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학교 수업의 중단은 교육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 보호, 부모 특히 여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침.

● 남미에서는 약 8,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해결함.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중남미의 사회적 상황은 빈곤층과 극빈곤층의 증가,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의 심화로 이미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로 중남미의 보건, 교육, 고용, 빈곤의 취약성이 여실히 노출됨에 따라 사회보장 확대 및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빈곤율과 극빈곤율이 상승...

사회보장 확대 및 사회서비스 질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

» 특히 보건부문에 있어서 의사와 숙련된 의료 인력의 부족, 공공보건에 대한 투자 부족, 보건시스템의 파편화와 분절화에 따른 보편적 접근성 부재의 문제와 의료 불평등 및 의료 격차의 문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여실히 드러나면서 의료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다. 정치적 영향

» 코로나19 위기는 2019년 하반기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 불만이 폭발하면서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었던 반정부 시위를 중단시켰고, 경제개혁과 재정 긴축정책에도 제동을 걸었음.

- 강력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과 정규직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켰음.
- 위기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로 칠레와 볼리비아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선거가 중단 또는 연기되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 칠레는 2019년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1973~1990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을 폐기하고 신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 투표를 4월 26일 실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월 25일로 연기함.
- 볼리비아는 지난해 대선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부정선거 논란으로 무효화된 대선을 5월 3일에 다시 치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9월 6일로 연기했음.
- 그 밖에도 멕시코, 콜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의 지방 선거가 중단 또는 연기됐음.

» 위기 상황에서 단호하고 강경한 방역 정책과 광범위한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한 강한 대통령의 인기가 크게 증가했고, 온건한 조치를 취하거나 격리정책 또는 양적완화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면서 강한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증대함.

- 전면적이고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한 엘살바도르 부켈레(Nayib Bukele)(97%), 페루 비스카라(Martín Vizcarra)(87%),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83%), 코스타리카 알바라도(93%), 과테말라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89%)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코로나19 위기를 부정한 브라질의 보우소나루(27%)와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23%),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대응을 한 칠레의 피네라(Sebastián Piñera)(25%),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니카라과의 오르테가(36%)는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강한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증대...

» 사회보장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중요한 정치적 균열구조로 작용하면서, 코로나 이후 시기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회 소요사태가 전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보수세력과의 충돌이 예상됨.
- 지난해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중단되었으나,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피해가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사회 소요사태가 전 지역에서 발생할 것...

시위가 중남미 전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작년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로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에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시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단속하면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조짐이 나타남.

라. 국제정치적 영향

중국이 마스크 외교로 메우자,
미국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추가 원조로 대응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자체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생긴 서반구에서의 리더십 공백을 중국이 마스크 외교로 메우자, 미국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추가 원조로 대응하면서 중남미 지역에서의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나타남.

● 중국은 초기 피해가 심각했으나,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서 코로나19 발원지와 정보 공개 투명성 논란에 따른 실추된 위상과 책임

비난 회피를 위해 ‘마스크 외교’로 상징되는 의료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미국은 미주보건기구(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 대한 예산 삭감과 미국 기업의 의료장비 수출 차단 등이 중남미 국가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중국과의 보건 의료협력을 강화하는 동기를 제공하자 멕시코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코로나19 영향 완화를 위한 2,200만 달러를 지원했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및 엘살바도르에 2억 7,5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함.

●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방역물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신속한 지원을 받은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에 감사를 표명하고 중국의 코로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코로나19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로 중남미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중국 이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은 더욱 증가할 것임.

●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중남미에서 중국의 자본이 서구 자본을 대체하면서 중국의 진출이 본격화됐고,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 및 금융협력을 확대하여 비교적 금융위기의 타격을 적게 받았음.

●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저조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는 중국보다 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이 현실적인 대안임.

» 중국에게도 중남미는 제2대 해외투자처이고, 지난 10년간 1,40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곳이기 때문에 자본 회수를 위해서라도 중남미 경제를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봄.

» 미국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의 '마스크 외교' 공세를 무력화하고 중남미 국가들을 압박하기 위해 IMF, WB, IDB 등의 국제금융기관들의 조건부 금융 지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남미 지역 내 리더십 부재와 지역 협력이 부재함.

● 역내 강국인 브라질과 멕시코는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고,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경제 위기로 리더십을 발휘할 능력이 없는 바, 역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국가가 없음.

● 우파 국가 동맹인 프로수르(PROSUR)의 화상정상회담(Virtual Presidential Summit), 미주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일부 조치를 제외하고는 역내 협력이 없었으며, 지역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전략이 부재함.

5. 고려 사항

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 코로나19 감염 통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의료체제와 경제적 조건이지만, 중남미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요인 외에도 사회 안전망과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방대한 빈곤층과 비공식 노동 부문의 존재가 정부의 방역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남미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율이 가장 낮고 사회보험의 혜택 범위가 넓은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중산층의 비중이 높은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반면, 빈곤율이 높고 비공식 노동자층이 두터운 페루는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격리조치와 가장 많은 예산을 경기부양에 투입하였음에도 감염 억제에 실패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국가들의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 이번 중남미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단절과 배제가 사회 전체를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교훈은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포용 국가’ 비전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국가들의 복원력 있는 사회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우리의 대중남미 외교의 새로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함.

-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보건 의료와 교육 등 사회의 기본권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나. 한국 외교의 위상 상승을 대중남미 외교 전환의 모멘텀으로 활용

» 한국의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외교 성과와 방역 모델의 성공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중남미에서도 어느 때보다 자주 한국이 마스크를 통해 중남미인들에게 노출되고 있음.

- 재외 국민들을 자국으로 수송해 오고 대통령과 외교장관을 비롯하여 일반인까지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방역 성과를 알리면서 중남미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이 높아졌음.

» 그동안 한국은 분단국가, 북한의 핵위협, 한류 등으로 노출되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첨단 기술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국가로 부각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됨.

» 중국의 중남미 외교가 성공적인 것은 ‘상생’ 그리고 ‘공동발전’과 같은 보편적인 담론이 있기 때문인바, 우리도 ‘인간 안보’, ‘지식 공유’, ‘포용성장’과 같은 대중남미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담론을 만들 필요가 있음.

- 백신 또는 방역물품 제공, 디지털 인프라 구축, 온라인 기술 및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담론을 실천해 갈 수 있음.

‘인간 안보’, ‘지식공유’, ‘포용성장’과 같은 대중남미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담론을 만들 필요...

다. 방역물품 지원 및 중남미형 방역 모델 모색에 협력

» 남반구에 위치한 중남미 국가들은 절기상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은 겨울로 들어 서고 있고, 아직 확산 곡선이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7~8월에 감염자 폭증이 예상되는 바 중남미 보건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방역 물품 지원 및 중남미의 현실을 고려한 창의적인 방역 모델을 제안하고 협력할 것을 제안함.

- 한국의 방역 성공의 비결은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와 성숙한 시민참여 전략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나, 우리의 경험을 중남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중남미에 효과적인 대응전략 모색에 협력함.
- 마스크와 소독용 젤 등 기초적인 방역물품의 현지생산 지원 및 화상강의에 필요한 장비, 기술,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지원 등 코로나 위기 대처에 당장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

라.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 교류’를 중남미 외교채널로 적극 활용

» 언택트 문화로의 변화는 그동안 중남미와의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언택트의 확산은 일시적 변화가 아닌 앞으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 새로운 일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교의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ICT 기반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회이며, 중남미 국가들과의 새로운 외교채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지리적 한계 때문에 중남미와의 교류에 한계가 있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화상회의를 비롯한 언택트 교류가 증가할 것인바, 고위급 및 실무자 간 언택트 화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접촉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및 외교 다변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질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등 변화에 따른 대외 경제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중남미는 미국, 유럽,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시장을 점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 장벽이 높았으나, 이들 국가들이 코로나19 피해 복구로 여유가 없어지면서 공백이 생겼는바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역량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체계와 효율적인 보건시스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바, 보건 협력을 디딤돌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중남미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플랫폼을 마련하여 협력을 다각화해야 함.

» 일부 품목에 편중된 대(對) 중남미 교역을 점차 IT, 생명공학, 보건 의료 분야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여 지연되고 있는 한·중남미 FTA의 돌파구로 활용함.

●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체 진단키를 개발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고, 코스타리카는 3D프린터를 이용한 보호장비를 개발하고 코로나19 신약 개발에 착수하는 등 중남미 내 역량이 있는 국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협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바. 현지 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는 한인사회와의 공조

» 중남미 각국의 다양한 한인공동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현지 저소득층들과 의료진을 위해 식료품과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어 현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음.

» 스페인어가 능통한 이민 2~3세대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 전략을 소개하고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소개함.

» 한인사회의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면서 훌륭한 공공외교의 자원이 되고 있는바, 우리의 대중 남미 외교의 자원으로 한인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